

#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 및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Marital Conflic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강 사 하 상 희\*

Dept.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

Lecturer : Ha, Sang-Hee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on self-esteem and marital conflict among married men and wome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ith 311 married men and wome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en and women's family of origin experience(family of 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conflict, triangulation) were correlated with self-esteem and marital conflict. Second,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men and women's self-esteem was most powerful predictors of marital conflict. Finally, men's family of origin experiences(family of origin health, parents' marital conflict, triangulation)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and family of origin health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men's self-esteem on marital conflict. Women's parents' marital conflict, triangulation had a direct effect on marital conflict, and family of origin health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women's self-esteem on marital conflict.

---

▲주요어(Key Words) : 원가족 건강성(family of origin health), 부모의 부부갈등(parents' marital conflict), 삼각관계(triangulation), 자존감(self-esteem),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가족관계의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는 가장 밀접하고 지속성 있는 전인격적인 관계로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만족할 때 가족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원만한 부부관계는 개개인의 가족원과 가족전체, 나아가 사

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김현정·김명자, 1999).

국내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원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 (김현정·김명자, 1999; 유은희, 1991; 전춘애, 1993; 최난경, 2003)에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상호작용의 질이 차후 개인의 생활 및 부부의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현정(1999)의 연구에서 원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상호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차후의 결혼생활 적응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 저 자 : 하상희 (E-mail : sh0522@hanmail.net)

부부갈등은 부부간의 기대가 상이하거나 배우자의 한 쪽이 자신의 원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를 갖고 비합리적인 정서체계에 융합될 때 심화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한 쪽이 원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원가족과의 이해결된 문제와 관련하여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최현미, 1997).

원가족(family of origin)은 한 개인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 이 원가족의 근원적인 영향력은 깊이 스며들어 결혼을 통하여 새롭게 가족을 이룬 개인과 그 개인의 현재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한다(Hovestadt et al., 1985). 한 개인의 현재 자아상, 가치, 행동, 태도 및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양식의 발달은 원가족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초기 경험은 일생동안 개인의 여러 발달 영역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Rovers et al., 2000).

원가족 경험은 개인이 성장하는 동안 원가족 내에서 접하게 되는 경험들을 뜻하는 것으로 유은희(1990)는 대부분의 기혼 자녀들은 자신의 결혼생활이 원가족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 가족에서 자녀의 가족관계는 원가족도 포함시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을 자녀가 성장하면서 경험한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과 부모님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로 측정하고자 한다. 부모의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부모자녀간에 삼각관계에 빠지기가 쉽고(이종원, 2002; 전연진, 2002), 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낮은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김정자, 2004). 그러므로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님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원가족의 부부관계(김상빈, 1994; 김소향, 1994; 최인실, 2004)와 부모-자녀 관계(원영희, 1990; 정은희, 2004)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ternberg, 1993). 따라서 기혼남녀의 성장시 원가족 경험은 현재 자아존중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자아존중감을 통해 부부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과 갈등이 많고 건강하지 못한 경험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지금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 밝혀졌다(권정란, 2005; 김순기, 2001; 김현정, 1999; 윤혜영, 2000; 이종원, 2002; 전춘애, 1993; 최난경, 2004; Fine & Hovestadt, 1984; Sabatelli & Suzanne, 2003). 원가족에서 부모님의 부부

관계와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이 자존감을 매개로 생식가족 내에서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까지 살펴보는 것은 미래 사회의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개인생활과 사회구조의 핵심 체제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개인이 질 높은 삶을 영위하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건강하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김순기, 2001).

자존감의 형성은 가족구조와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인간의 초기 관계형성 과정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거나 자녀가 자기가치와 자존감을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또는 기회를 주고 반응은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기가치나 자존감이 낮게 형성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Satir는 이러한 자존감을 인간의 기본 욕구로 간주하였으며, 자존감은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얻어지는 개념이며 그것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족이라고 하였다(정문자, 2003). 강승규(1994)도 자존감을 지원해주는 것은 어린시절의 환경의 영향이라고 보고 가정환경적 요인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권대회, 2003, 재인용), 선행연구들의 결과(권대회, 2003; 김현정, 1999; 양진선, 2004)에서도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원가족 경험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원가족 경험은 기혼남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자존감을 통한 간접영향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기혼남녀가 성장과정에서 경험한 원가족 경험이 개인의 자존감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혼 성인 세대는 원가족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자신의 생식가족을 형성하고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세대이므로 이들이 건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의 건강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이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과 부부갈등의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과 자존감, 부부갈등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 자존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경로로 나타나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Satir(1988, 1993)는 자존감을 인간의 기본적 요구로 간주하고,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에너지의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건강한 부부관계의 핵심적 요소로 각 배우자의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개인이 현재 느끼는 감정과 행동을 자신의 원가족에서 보고자란 생활 경험의 결과로 보았으며,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자존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자존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족원 각자가 기능하는 바와 전체 가족체계가 기능하는 바에 관련되는 중요한 심리 특성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어은주, 1996).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수용하며 가치롭고, 유능하며, 긍정적으로 보는가의 정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게 되므로 오랜 기간을 함께 보낸 가족의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여겨진다(권대희, 2003). 자존감은 원가족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부부가 자율성을 격려하는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였거나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개인적 발달을 이루지 못하여 자존감이 낮게 형성되었을 때 원가족의 영향에 잘 대처해 나가기 어렵다.

원가족 건강성은 어린시절 개인이 성장한 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지각한 정도로 원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한다(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Williamson(1978)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서 원가족과의 문제로부터 받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지 못할 뿐, 원가족 건강성은 가족 내 역동적인 상호관계에 의해 자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가족의 건강성과 자존감과의 관계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권대희, 2003; 양진선, 2004; 윤세은, 2000)에서 원가족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emo(1987)는 가족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전반적인 가족 건강성과 관련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어은주(1996)의 연구에서도 두

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데 가족의 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의 특성이라고 하였다.

강전희(1995)의 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상호태도나 가족 내 인간관계와 같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Robert와 Bengtson(1993)은 종단적 연구에서 후기 성인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있어서 성인기 이전의 부모와 자녀 관계의 장기적인 효과를 지지하였는데, 어린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분한 친밀감을 경험한 자녀는 14년 후에도 그렇지 못한 성인 자녀들보다 더 높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부부갈등도 자녀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인실, 2004).

한국가족의 경우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하기 보다는 부모나 집안 어른의 뜻에 따르는 것에 익숙해짐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도 의존적인 관계를 벗어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세대간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부부관계에 자녀를 끼어들임으로써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본다(최현미, 1997). 이러한 현상을 Bowen은 삼각관계라고 했다.

삼각관계란 상황적인 불안이나 만성적인 불안이 두 사람 관계가 견딜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심화될 때, 취약한 제삼자가 개입하면 형성되는 관계로(Becvar & Becvar, 2001),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는 불안을 줄이거나 낮추는 역할을 함으로써 관계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간다고 하였다(김용태, 2000). 한국의 가족은 부모자녀간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엄예선, 1990), 부부관계가 약화되어 있어 부부사이에 자녀를 끼어들이는 예가 많아 삼각관계가 형성되는 가족이 많다고 볼 수 있다(송정아·최규련, 1997). 부모자녀간에 삼각관계가 형성되면 자녀는 자율적이지 못하며 한 부모에게 거부당한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된다(옥경희, 1995).

이처럼 한국가족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삼각관계의 개념을 단독 변인으로 하여 원가족 건강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국내의 선행연구는 없으나, 외국의 경우 Jacobs(1991)는 원가족에서 부부관계가 건강하면 충족되지 못한 기대를 자녀에게 요구하거나 편들어주기를 기대하는 자녀와의 삼각관계가 덜 형성된다고 하였다(엄혜정·정혜정, 2006, 재인용). Bartle과 Anderson(1991)도 가족분화가 덜 된 부모는 자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여 부부관계의 정서적 과정이 부모자녀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으며,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자녀 삼각관계와 자존감이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에 삼각관계의 정도가 낮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성장 시의 가족체계나 문화적인 배경, 성격 및 가치관과 인생경험 등이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난 부부사이에 있어서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한미향, 1999).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간 욕구의 상충과 목표 및 기대의 불일치를 말하는 것이다(Davis & Cummings, 1994). 부부는 서로 자라온 환경과 경험의 차이로 인하여 가치관과 행동 습관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차이점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차이는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부부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부부 각각은 부부 이기 이전에 각자 서로 다른 기대와 욕구를 가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상충되었을 때 갈등의 소지가 클 수 밖에 없다(최인실, 2004). 부부 각자의 기대와 욕구는 어린시절부터 원가족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원가족 경험은 부부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김경자, 2004; 김현정, 1999; 이종원, 2002; 전춘애, 1994)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도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Bowen은 핵가족 속에서 원가족의 영향을 강조하였는데, 원가족 내에서 습득한 상호작용방식은 결혼한 기혼자녀의 핵가족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점을 주목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원가족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김경자, 2004). 전춘애(1994)의 연구에서는 원가족에서 경험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관계는 상호 인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개인의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라 차후의 결혼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낮은 결혼의 질이 성인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들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따뜻하고 지지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Amato & Booth, 1994). Olson과 Hawley(1992)는 부부는 자신의 원가족과 유사한 가정을 이루거나 원가족에 대한 반발로 정반대의 가정을 이루기가 쉽고 두 사람이 성장해온 원가족 패턴이 서로 차이가 날수록 이들의 결혼 생활은 갈등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최난경, 2003)

Buckanan 등(1991)은 원가족의 경험에서 부모가 갈등상황에 있을 때 자녀들 또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낄 뿐 아니라 부모의 심리와 정서가 전수되어 진다고 하였다. 부부갈등이 심하고, 서로 적대시하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 끼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또한, 원가족에서 갈등에 직면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부모의 능력을 자녀가 학습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Cumming(1989)의 주장

처럼 부모의 고통스러운 부부생활, 특히 부부갈등은 자녀로 하여금 문제 대처에 이상을 나타내게 만들고 자녀의 결혼 생활에서도 갈등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고(전영주·이성희, 2006, 재인용),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하게 될 것이다.

Harrist와 Ainsle(1998)은 부부 불화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였다(남순현, 2001). Amato와 Booth(1994)도 부모들의 부부갈등은 아동기의 자녀에게 부모로서 해야 할 따뜻하고 지지적인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의 대인관계 발달에 영향을 미쳐 성인이 된 후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다(전현진·박성연, 1999)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긍정적이고 건강한 것으로 지각하는 사람과 갈등이 많고 건강하지 못한 경험으로 지각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지금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권정란, 2005; 김순기, 2001; 김현정, 1999; 윤혜영, 2000; 이종원, 2002; 전춘애, 1993; 최난경, 2004; Fine & Hovestadt, 1984; Sabatelli & Suzanne, 2003). 원가족에서 부모님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생식가족내에서의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를 모두 살펴보는 것은 건강한 가족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연구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삼각관계는 가족내의 정서적 규제가 실패하였을 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친밀한 관계로 인식되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삼각관계를 단독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없으나 원가족에서 분화의 한 측면으로 삼각관계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가족에서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더 강한 삼각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Benson(1993)등과 Larson(1998)등은 원가족에서 삼각관계와 같은 역기능적인 가족 관계를 겪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고 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에서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Guerin과 그의 동료들(1987)은 결혼 전 개인이 원가족에서 차지하는 위치, 즉 부모와의 삼각관계 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부부갈등을 진단하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원가족 분화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개인이 원가족에서 잘 분화할수록 부부갈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연석, 1999; 이창만, 1992; 한미향, 1999;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원가족에서의 삼각관계 경험은 부부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순현(2001)은 부부갈등으로 인해 부부 중 한사람이 자신의 부부 관계의 불안정을 자녀에게 투사시킴으로써 자녀와의 삼각관계를 통하여 안정감을 찾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 3.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및 부부갈등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 가족체계 환경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자존감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이 된 원가족이라고 하였으며(오정옥, 1999), 선행연구들(김순기, 2001; 김현정·김명자, 1999; 전춘애, 1993)에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원가족 건강성과 애착과 같은 상호작용의 질이 차후 개인의 생활 및 부부의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부관계와 자녀의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은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자녀는 내면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며(김소향, 1994), 부모의 부부갈등이 격렬할수록 자녀는 슬픔을 느끼고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다(최인실, 2004). 또한 원가족 건강성은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현정·김명자, 1999), 부모자녀간의 삼각관계도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혜정·정혜정, 2006).

자존감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원가족 경험이 자존감을 통해 부부갈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와 유사한 연구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엄혜정과 정혜정(2006)의 연구에서 이성교제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가족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부관계분화와 가족규칙, 삼각관계, 의사소통으로 구성된 원가족 경험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김현정과 김명자(1999)의 연구에서도 원가족 건강성은 자존감을 통해 결혼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관계에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lp와 Beach(1993)의 연구에서도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자존감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박정희·유영주, 2000).

Nelson과 Benedict(1994) 그리고 Levine(1991)은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 개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한 자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경희, 1998, 재인용). 즉 부부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은 각 배우자의 심리적 건강인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느끼고, 상대방의 행복에 관심이 많으며, 그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크다. 또한 자존감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여러 상황에서 난처함과 불안함을 느끼며, 그 곤경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대인관계의 형성 뿐 아니라 이의 유지도 회피하려고 환경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이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접촉을 좋아하며 더 쉽게 설득되고 환경적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상빈, 1994).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결과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부부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자존감을 매개로 하여 현재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부가 어린 시절 경험한 원가족 경험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표집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2006년 4월~5월 까지 4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345부를 회수하고, 이중 부실 기재한 34부를 제외한 311부를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전체 응답자 중 남자는 123명(39.5%), 여자는 188명(60.5%)이며, 조사대상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남자 43.2세, 여자 38.5세이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131명(43.1%)이고 대졸이상이 173명(56.9%)이다. 가계소득은 200~400만원 미만인 129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소득은 373만원으로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16만원(통계청, 2006)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은 10~15년 미만이 120명(39.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결혼기간은 13.8년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94명(62.4%)이고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117명(37.6%)이고, 결혼상태는 초혼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5명(94.9%)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원가족 정감성

Hovestadt와 그의 동료들(1985)이 제작한 Family-of-Origin Scale(FOS)의 제작 원리를 바탕으로 한국가족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최현미(1997)의 원가족 척도(the Family of Origin Scale-55: FOS-55)중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측정하는 16문항을 사용했다. 개인이 자신의 원가족 건강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의 경우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에 대한 인식의 전반적인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남자 .92, 여자 .91이다.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특성

N(%)

변 수	분 류	빈 도(%)	변 수	분 류	빈 도(%)
성 별	남 자	123(39.5)	학 력	고졸 이하	131(43.1)
	여 자	188(60.5)		대졸 이상	173(56.9)
남자나이	35세 미만	10( 8.2)	여자나이	35세 미만	48(25.5)
	35~40세 미만	38(31.1)		35~40세 미만	79(42.0)
	40~45세 미만	33(27.0)		40~45세 미만	39(20.7)
	45세 이상	41(33.6)		45세 이상	22(11.7)
남자 평균나이		43.2세	여자평균나이		38.5세
결혼기간	10년 미만	81(26.5)	소 득	200만원 미만	92(33.1)
	10~15년 미만	120(39.2)		200~400만원 미만	129(46.4)
	15~20년 미만	105(34.3)		400만원 이상	57(20.5)
평균 결혼기간		13.8년	평균소득		373만원
종 교	유	194(62.4)	결혼상태	초 혼	295(94.9)
	무	117(37.6)		기 타	16( 5.1)

## 2) 부모간 갈등

Porter와 O'Leary(1980)의 O'Leary-Porter Scale을 어주경(1998)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상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의 5점 Likert 척도로 10번 문항을 제외한 총 9문항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많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남자 .88, 여자 .87이다.

## 3) 부모자녀 삼각관계

전연진(2002)이 재구성한 원가족 분화 경험 척도중 삼각관계와 관련된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삼각관계는 특별한 형태의 세 사람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에서는 부부간에 긴장이 발생하면 긴장을 해소, 완화시키기 위해 부부중 한 명이 자신들의 문제에 자녀를 끌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원가족에서의 경험한 문항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산출 방법은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사용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남자 .91, 여자 .90이다.

## 4) 자존감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어주경(1998)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말 아니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4점까지의 Likert 척도이다. 3, 5, 8, 9, 10번의 부정적 문항은 역점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남자 .87, 여자 .82이다.

## 5) 부부갈등

Jeon(1994)이 개발하고 번역한 결혼갈등 측정도구(Marital Conflic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일상에서 부부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한 표현 및 해결 정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직·간접적 갈등 표현' 9문항, '합리적 해결' 8문항, '갈등회피' 9개 문항 등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중 '직·간접적 갈등 표현' 항목 9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0점)'에서 '항상그렇다(5점)'까지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점수 산출방법은 응답자가 갈등 상황에서 자신이 배우자에게 한 행동과 배우자가 자신에게 한 행동을 각각 평정한 후 이 두 가지 평정치를 합산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를 각각 산출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이 빈번하고 적대적인 갈등 유형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남자 .89, 여자 .86이다.

## 3. 자료분석

SPSS WIN 12.0을 사용하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 자존감,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의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다.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 자존감 및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부부갈등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IV. 연구결과

1. 원가족 경험에 대한 지각과 부부갈등에 대한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 기혼남녀가 지각하는 원가족 경험 및 자존감과 부부갈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원가족 경험 중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은 평균 57.1로 나타났다. 이는 본 척도의 점수범위가 34~80점이고 중앙값이 56.5이므로 보통정도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혼남자와 여자 모두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을 보통정도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의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도 전체 평균 24.1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척도의 범위가 10~44점이고 중앙값이 24.0에 비추어 보아 중앙값에 가까운 값으로 부모의 부부갈등을 남녀모두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삼각관계는 전체평균 12.9로 나타났는데 전체척도의 범위가 7~27점이고 중앙값이 12점으로 삼각관계의 정도를 보통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원가족 경험은 남자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자녀삼각관계를 중간정도로 지각하며 부모의 부부갈등은 낮게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원가족 건강성을 낮게 지각하고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중간정도로, 부부갈등은 높은 것으로 지

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존감은 전체평균 28.9로 중앙값인 29.0점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은 전체평균 22.0으로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및 부부갈등의 상관관계

연구문제2와 관련하여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원가족 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과 자존감 및 부부갈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우선 원가족 경험인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남성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원가족 건강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시절 지각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심했던 것으로 지각할수록 원가족 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건강성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와는

<표 2>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 및 부모의 부부갈등의 일반적 경향

M(SD)

변 인		전체평균(SD)	문항당평균(SD)	
원가족 건강성	남	57.7(10.0)	3.59(.64)	
	녀	56.7(10.1)	3.55(.63)	
	전 체	57.1(10.1)	3.57(.63)	
원가족 경험	부모님의 부부갈등	남	24.0( 6.2)	2.31(.60)
		녀	24.2( 6.5)	2.33(.59)
		전 체	24.1( 6.4)	2.32(.59)
부모자녀 삼각관계	남	13.1( 4.4)	1.78(.64)	
	녀	12.8( 4.4)	1.98(.74)	
	전 체	12.9( 4.4)	1.88(.67)	
자존감	남	29.9( 4.7)	2.98(.47)	
	녀	28.2( 4.3)	2.82(.43)	
	전 체	28.9( 4.6)	2.88(.45)	
기혼남녀 부부갈등	남	21.6( 5.8)	2.17(.58)	
	녀	22.2( 5.9)	2.22(.59)	
	전 체	22.0( 5.9)	2.20(.59)	

&lt;표 3&gt;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여 자	남 자	원가족경험			자존감	부부갈등
		원가족건강성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		
	원가족건강성		-.56***	-.41***	.32***	-.46***
원가족 경험	부모의 부부갈등	-.39***		.47***	-.23***	.48***
	부모자녀삼각관계	-.05	.37***		-.23**	.39***
	자존감	.29***	-.09	-.02		-.41***
	부부갈등	-.21**	.25***	.23**	-.37***	

\*p&lt;.05, \*\*p&lt;.01, \*\*\*p&lt;.001

&lt;표 4&gt;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경로분석

변 인		남 성				여 성			
		자존감		부부갈등		자존감		부부갈등	
		B	$\beta$	B	$\beta$	B	$\beta$	B	$\beta$
독립변수	원가족경험								
	원가족건강성	.19	.26*	-.15	-.17*	.21	.30***	-.03	-.03
	부모의 부부갈등	-.03	-.04	.25	.25*	.01	.01	.15	.15*
	부모자녀삼각관계	-.08	-.11	.13	.14 <sup>†</sup>	-.01	-.01	.15	.17**
	자존감			-.32	-.26***			-.48	-.35***
	상 수	2.53		2.86		2.09		3.05	
	F-value	5.28***		16.26***		5.80***		12.05***	
	R <sup>2</sup>	.12		.36		.09		.21	
	Durbin-Watson	1.79		1.78		1.86		1.91	

<sup>†</sup>p<.10, \*p<.05, \*\*p<.01, \*\*\*p<.001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부모 자녀삼각관계가 심하지 않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원가족 건강성만 자존감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현재 부부갈등 간에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할수록 기혼남녀의 현재 부부갈등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원가족에서 부모의 부부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지각할수록 또한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심할수록 현재 부부갈등도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갈등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는 부부갈등과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존감과 부부갈등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존감과 부부갈등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의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미치는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의 직접적 영향력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원가족 경험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살펴보았다.

#### 1) 경로분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과 동일하게 경로분석에서도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독립변인들의 상관계수 값이 .60을 넘지 않았고, 각 변인의 VIF값이 1.10~1.61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Durbin-Watson계수 산출 결과 1.79~1.91로 나타나 이 변인들을 회귀분석에 투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 자존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이 변인들을 투입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매개변수인 자존감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자존감을 독립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에서 산출된 경로계수로 부부갈등에 대한 직·간접 효과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남성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에는 자존감( $\beta = .26, p < .001$ ), 부모의 부부갈등( $\beta = .25, p < .05$ ), 원가족 건강성( $\beta = .17, p < .05$ ), 부모자녀삼각관계( $\beta = .14, p < .10$ )의 순으로 영향을 미쳐 기혼 남성의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경우 남성과 마찬가지로 자존감( $\beta = .35, p < .001$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자녀삼각관계( $\beta = .17, p < .01$ ), 부모의 부부갈등( $\beta = .15, p < .05$ ) 순으로 영향을 미쳤고, 원가족 건강성은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남성 36%, 여성 21%로 나타나 원가족 경험 및 자존감이 남성의 부부갈등을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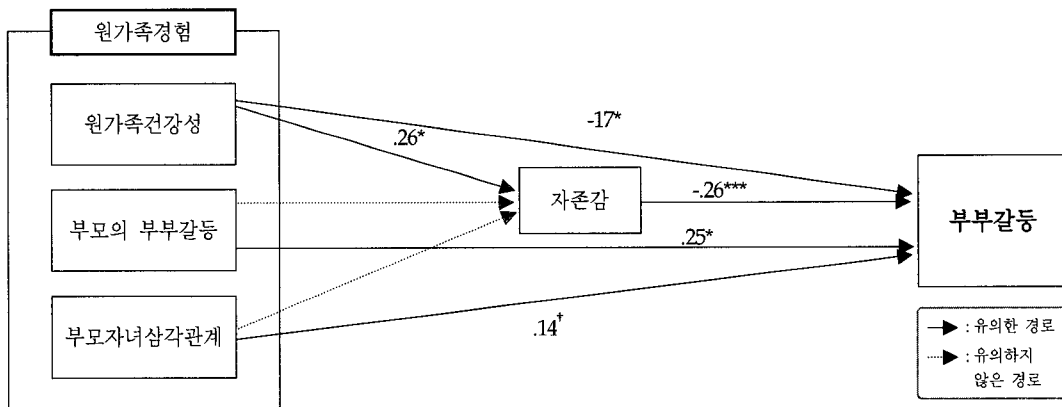
다음으로 남성의 자존감에는 원가족 건강성( $\beta = .26, p < .05$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자존감에도 원가족 건강성( $\beta = .30, p < .001$ )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경험의 자존감 설명력이 남성 12%, 여성 9%로 나타났다.

2) 부부갈등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  
부부갈등에 대한 원가족 경험의 인과효과에 대한 경로모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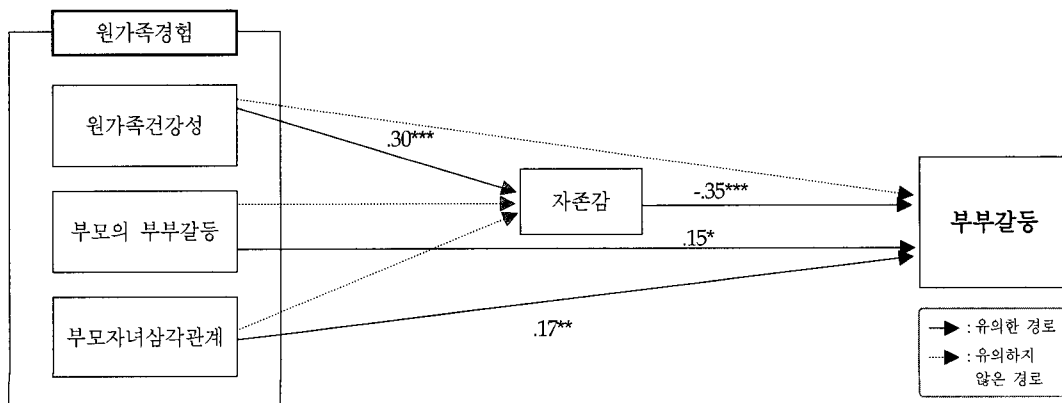
<그림 1>과 <그림 2>와 같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 $\beta = .17, p < .05$ )과 부모의 부부갈등( $\beta = .25, p < .05$ ), 부모자녀삼각관계( $\beta = .14, p < .10$ ) 모두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 $\beta = .26, p < .001$ )이었다. 또한 자존감을 매개로 원가족 건강성은 부부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가족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할 때 자존감이 높았고 이는 부부갈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부부갈등에 대한 전체효과를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부부갈등과 원가족 건강성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경우 부모의 부부갈등( $\beta = .15, p < .05$ )과 부모자녀삼각관계( $\beta = .17, p < .01$ )는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원가족 건강성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을 매개로 원가족 건강성은 부부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삼각관계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원가족 건강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높았고



<그림 1> 기혼남성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그림 2> 기혼여성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lt;표 5&gt;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의 직·간접효과

	부부갈등					
	남 성			여 성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인과효과
원가족 경험	원가족건강성	-.17	-.07	-.24	-	-.11
	부모의부부갈등	.25	-	.26	.15	.15
	부모자녀삼각관계	.14	-	.17	.17	.17
자존감	-.26	-	-.26	.35	-	.35

이는 부부갈등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부부갈등에 대한 전체효과를 통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자존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모자녀삼각관계, 부모의 부부갈등 순으로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부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의 경우 자존감이며 원가족 경험은 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가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원가족 건강성만 자존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여성의 경우도 자존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부부갈등과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부부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 원가족 건강성은 자존감을 통한 간접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원가족 경험이 기혼남녀의 자존감을 매개로 부부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건강성은 남자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자의 경우 전체평균보다 낮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순기(2001)와 양진선(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전춘애(1994)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부모자녀삼각관계의 경우 남녀모두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부부의 삼각화는 부부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힌 최남경(2004)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부부가 원가족에서 삼각화를 별로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전연진(2002)과 부인이 삼각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지각한 이종원(2002)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족 건강성에 대한 측정이 현재의 실제적인 현상이기 보다 지각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연구대상자의 연령층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부모자녀삼각관계도 삼각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부모와 삼각관계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입장에 따라 그 정도를 다르게 지각할 수 있으므로 대상과 연령에 따라 그 정도가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존감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김현정(1999)과 양진선(2004), 정은희(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은 중간정도인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송말희, 1990; 이종원, 2002; 최규련, 1994; 한미향, 1999)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부부갈등은 결혼안정성을 위협하여 가족해체와 직결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전 연령층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통계청, 2006), 건강한 가족의 유지를 위해서는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부부갈등 해소를 위해 상담 및 가족치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및 부부갈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기혼남성의 경우 원가족 경험 즉,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는 서로 상관이 높고, 원가족 경험과 자존감,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 자존감과 부부갈등이 서로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혼여성도 원가족 경험 중 원가족 건강성과 자존감만 정적상관이 있고, 자존감과 부부갈등,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이 서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혼부부의 자존감은 원가족 건강성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김순기(2001)와 양진선(200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며, 원가족에서 정서적 단절과 삼각화 같은 가족투사를 많이 경험할수록 심한 부부갈등을 나타낸다는 연구(서연석, 1999; 이창만, 1992; 한미향, 1999)와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원가족 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삼각관계 정도가 약해지므로 삼각관계가 부부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Benson과 그의 동료들(1993)과 Larson과 그의 동료들(1998)은 원가족에서 삼각관계, 융합과

같은 역기능적인 가족 과정을 겪은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와 감정을 갖고 있으며,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문제에서 부부간에 많은 갈등을 겪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므로 결혼 이후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원가족에서의 경험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이 본 연구 결과 검증되었으므로 성장시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기혼남녀 모두 부부갈등은 자존감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남성은 부모의 부부갈등이 여성은 부모자녀 삼각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원가족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김현정과 김명자(1999), 전영주(1998), 전춘애(199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부계적 가족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지며 핵가족화가 이루어졌어도 전통적 요소가 잔존하고 있는 한국문화권에서 부모들이 출가하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혼여성의 경우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원가족 경험은 부모자녀 삼각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는 삼각관계가 부부관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연진(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원가족에서 분화수준이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높다고한 서연석(1999), 이창만(1992), 한미향(1999), Bartle-Haring과 Sabatelli(1998)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원가족에서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할수록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쉬우며 특히 여성의 삼각관계 점수가 더 높은 이유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들이 아들보다는 딸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지하며, 어린시절부터 학습된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결과 아들보다 딸이 부모의 갈등 시 부모사이를 중재하고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대되고 격려 받는 한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직접영향은 기혼남성의 경우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는 직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혼여성은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삼각관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영향은 남녀 모두 원가족 건강성만 자존감을 통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삼각관계를 원가족 분화의 한 측면으로 연구한 서연석(1999), 전춘애(1994), 전연진(2002)의 연구에서 남편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었던 반면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은 부부갈등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Gilligan(1982)과 Lim(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원가족 분화 경험이 부부갈등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와의 삼각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각 배우자의 정서적인 성숙도와 부부갈등을 진단하는데 매우 중요하여 한 쪽 배우자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밀착되어 있을 경우 부부 결합이 어렵고, 부모와의 문제를 부부관계에서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를 보고한 Guerin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87)와 일맥상통한다(이종원, 2002, 재인용).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표집을 전주시에 제한하였고, 남성과 여성의 표집 비율이 동일하지 못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남녀 균등한 비율로 표집하여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과 부모의 부부갈등, 부모자녀 삼각관계를 원가족 경험의 하위영역으로 살펴본 결과 기혼남녀의 부부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부부갈등이 단순히 부부만의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원가족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세대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원가족 경험 변인뿐만 아니라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의 주요개념인 자아분화 등을 포함하여 핵가족 정서체계나 다세대전수, 가족 투사과정 등 원가족 영향력이 세대간에 전수되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다세대적 연관성을 검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후속연구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이 부부갈등이나 부부적응 등 부부관계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해 본다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족문제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대안책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원가족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부부갈등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자존감이라고 밝혀졌다. 자존감은 원가족 경험 안에서 부모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므로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원가족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남성의 경우 직장생활에 매여 개인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직장과 가족이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접수 일 : 2007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07년 03월 23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8월 18일

## 【참 고 문 헌】

- 권대회(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란(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용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 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상빈(1994). 가족 및 부부관계와 자녀의 심리적 특성.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향(1994).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감정적 평가와 인지적 평가.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태(2000). 가족치료이론. 서울 : 학지사
- 김현정(1999). 원가족 경험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청주시 결혼초기부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 김명자(1999). 근원가족 건강도, 자아존중감, 결혼적응의 관계 - 청주시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39-60.
- 남순현(2000).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에 관한 연구-성인자녀 가족과 3세대 가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 · 유영주(2000).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주부의 자아존중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55-174.
- 서연석(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 정도와 대응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31-47.
- 송정아 · 최규련(1997). 가족치료 이론과 기법. 서울 : 하우
- 양진선(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1996).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어주경(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혜정 · 정혜정(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16.
- 오정옥(1999).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4(2), 153-172.
- 옥경희(1995).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 광주대학생활연구, 2, 1-16.
- 원영희(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영(2000).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만(1992).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부부갈등과 부부적용.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연진(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주(1998). 삼세대 가족의 정서체계 역동성과 성인 자녀의 우울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1), 22-45.
- 전춘애(1994). 부부의 자아분화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 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현진 · 박성연(1999). 부모의 아동기 경험, 인성 및 결혼만족도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153-169.
- 정문자(2003). 사티어 경험적 가족치료. 서울: 학지사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낙경(2003). 부모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녀양육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인실(2004).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갈등과 심리적 적응 및 진로태도성숙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미(1997). 원가족 척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상희(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미향(1999). 부부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방안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tle, S. E., & Anderson, S. A.(1991). Similarity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levels of individuation. *Adolescence*, 26, 913-924.

- Bartle-Haring, S., & Sabatelli, R.(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enson, M.J., Larson, J., Wilson, S.M. & Demo, D.H.(1993).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5(August), 663-672.
- Becvar, D. S., & Becvar, R. J.(1988). 정혜정 · 이형실(1997)역. 가족치료 체계론적 통합. 서울: 하우
- Coopersmith, S. (1967).*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Davis, P. T., & Cummings, E. 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Fine, M. & Hovestadt, A. J.(1984). Perceptions Of Marriage And Rationality By Levels Of Perceived Health In The Family Of Origin.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2), 193-195.
- Gilligan(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uerin, p. J., Fay, L. F., Burden, S. L., & Kautto, J. G.(1987). *The Evaluation and Treatment of Marital Conflict: A Four-Stage Approach*. Basic Books.
- Harrist, A. W.& Ainsle, R. C.(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Hovestadt, A.J., Anderson, W. T., Piercy, F.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3), 287-297.
- Larson, J. H., Benson, M. J., & Wilson, S, M. (1998). Family of origin influences on marital attitudes and readiness for marriage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Family Issues*, 19(6), 750-768.
- Rovers, M, DesRoches, L., Hunter, P. E. & Taylor, B.(2000). A family of origin workshop : process and evaluation. *Family Journal*, 8(4), 368-375.
- Sabatelli, R. M. & Suzanne, B. H.(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February), 159-169.
- Satir, V. (1988). *The new peplemaking*. Mountain View,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_\_\_\_\_(1993).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ternberg, K. J. (1993).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4-52.
- Williamson, D. S. (1978). New Life at the graveyard: A method of therapy for individuation from a dead former 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4, 93-102.
- 통계청. [www.nso.go.kr](http://www.nso.go.kr).